

조기 계획

KOREAN | ENGLISH

이 안내서에서는 재정 및 법률 문제를 미리 계획하고 주선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도움이 되는 사람 및 기관 목록을 제시합니다.

치매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초기 단계에서 비즈니스 결정 능력이나 돈을 다룰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능을 훨씬 오래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의 능력이 감소되어 재정 및 법률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전 계획

사전에 계획하면 가족과 보호자들이 치매에 걸린 사람의 문제를 더욱 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또한 치매 환자가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경우 치매 환자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법적으로 서류에 서명할 수 있을 때 조언을 구하십시오.

돈 문제

은행 계좌가 공동 명의일 경우 치매 환자의 배우자가 계좌를 조정 변경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치매 환자가 그 계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름만으로 된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치매환자는 법적 수행 능력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그 계좌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 더 이상 수행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의 권한은 유효하지 않게 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치매환자가 조정 변경에 동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해결을 위해 은행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전 계획을 하게 되면:

- 모든 재정적 계좌에 공동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 담당자와 차후 재정 문제에 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가 자신의 재정을 이용하는 방법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 은행 매니저
- 공인 재정 상담가
- 변호사
- Dementia Australia

대리 위임권

대부분의 주 및 준주에서는 서명 시에 법적 수행 능력이 있을 경우 대리 위임권이라고 하는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 위임권은 해당인이 재정 사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지명된 사람이 그 사람의 재정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진단에 상관 없이 이러한 대리 위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혹은 일반적인 대리권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법적 수행 능력이 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대리 위임권은 철회되지 않는 한 위임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대리 위임권의 장점 중 하나는 치매 환자가 법적 재정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행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을 대신하여 그러한 행동을 할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 계획을 하게 되면:

- 치매 환자가 대리 위임권 부여를 고려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진단 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아직 그렇게 할 능력이 있을 때 그 기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 가족과 보호자들도 대리 위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그들도 무능력한 상태가 될 경우에 자신들의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게 합니다.
- 대리 위임권 사본을 소지하고 보관장소를 알도록 합니다.

National Dementia Helpline 1800 100 500

dementia.org.au

도울 수 있는 사람들

- 변호사
- 법률협회 (Law Society)나 기관 (Institute) 혹은 법률지원 기관 (Legal Aid)
- The Public Advocate 혹은 Public Guardian
- Dementia Australia

유언

유언은 고인의 유산 배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유언은 해당인이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치매 환자가 유언을 만들거나 유언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서명할 능력이 여전히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전 계획을 하게 되면:

- 최근의 유언을 만들게 됩니다.
- 실행자가 누구인지 유언장이 어디에 보관될지를 알게 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 변호사
- 법률협회 (Law Society)나 기관 (Institute) 혹은 법률지원 기관 (Legal Aid)
- Dementia Australia

의료에 대한 결정

치매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할 능력을 잃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 및 준주에서는 신뢰하는 친척이나 친구를 지명하여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주 및 준주의 법에 의해 특정 법정인 누군가를 지명하여 그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의료에 대한 결정을 위해 사전 계획을 하도록 돕기 위한 두 가지 유형의 방법이 있습니다.

- 건강 문제를 다루는 대리 위임권. 이를 통해 의료 결정을 위한 대리 결정자를 치매환자가 지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에 대한 치매환자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사전 지시문

일부 주 및 준주에서 다른 이름의 문서가 사용될 수 있지만 문서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전 계획을 하게 되면:

- 치매 환자가 의료 문제를 다루는 대리 위임권 혹은 사전 지시문을 만들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문서 사본을 가지게 되고 어디에 보관되는지 알게 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 변호사
- 법률협회 (Law Society)나 기관 (Institute) 혹은 법률지원 기관 (Legal Aid)
- The Public Advocate 혹은 Public Guardian
- Dementia Australia

후견 및 관리

대부분의 주 및 준주에서는 후견 보드 (Guardianship Board) 혹은 재판소 (Tribunal)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 결정할 능력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을 위해 후견인 혹은 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일을 다루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치매 환자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경우 후견인 혹은 관리인 지명을 위한 신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 혹은 관리인 지명 신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Dementia Australia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Dementia Australia는 지원과 정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치매 정보라인 (National Dementia Helpline) 1800 100 500에 연락하거나 본 기관의 웹사이트 dementia.org.au 를 방문하십시오.



언어 지원을 위해서는 통번역서비스에 131 450 으로 연락하십시오.

Early planning

This Help Sheet discusses ways to plan ahead and organise financial and legal affairs and lists people and organisations that can help.

Dementia affects people differently. One person may begin to lose the ability to handle money or make competent business decisions at an early stage, while another person may keep these skills much longer.

However, sooner or later their abilities will decline and the person with dementia will be unable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financial and legal matters.

Planning ahead

Planning ahead can make it easier for families and carers to manage the affairs of a person with dementia. It may also mean that the person with dementia can participate in the planning and make sure that their wishes are carried out in the way that they would like.

Wherever possible, get advice while the person with dementia can still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and is legally competent to sign any documents.

Money matters

If a bank account is in joint names, the partner of the person with dementia can continue to operate it without any change in arrangements. However problems can occur if the person with dementia uses the account inappropriately or has accounts in their name only. To avoid these difficulties the person with dementia can give authority, while legally competent, for another person to operate the accoun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authority will be invalid if completed when the person is no longer legally competent. If they are unwilling to agree to a change of arrangement it may be helpful to consult the bank manager about a possible solution.

Planning ahead means:

- Having joint signatures on all financial accounts
- Discussing future financial affairs with a financial adviser
- Arranging how and when the person with dementia will access their finances

Who can help?

- Bank manager
- Accredited financial adviser
- Solicitor
- Dementia Australia

Enduring Power of Attorney

In most States and Territories a person can sign a document called an enduring power of attorney if they are legally competent at the time of signing. An enduring power of attorney is a legal arrangement that enables a nominated person to look after the financial affairs of another person should they become unable to do so. Many people have enduring powers of attorney regardless of any illness or diagnosis.

An ordinary, or general, power of attorney is also available but is only valid while a person is legally competent. An enduring power of attorney continues until the person's death, unless revoked.

One of the benefits of having an enduring power of attorney is that it allows the person with dementia to choose someone to act on their behalf in legal and financial matters when they are no longer able to do so themselves.

Planning ahead means:

- Ensuring that the person with dementia has the opportunity to consider making an enduring power of attorney if they don't already have one, as soon as possible after diagnosis and whilst they have the capacity to do so
- Ensuring that family and carers also have their own enduring powers of attorney to ensure that their affairs are well managed in case they also become incapable
- Having a copy of the enduring power of attorney, and knowing where it is kept

National Dementia Helpline 1800 100 500

dementia.org.au

Who can help?

- Solicitor
- The Law Society or Institute, or Legal Aid
- The Public Advocate or Public Guardian
- Dementia Australia

Wills

A will gives instructions as to how the estate of a deceased person should be distributed.

A will is only legal if the person understands its implications, so it is essential that if the person with dementia wishes to make, or update their will, they do so while they are still competent to sign.

Planning ahead means:

- Having an up-to-date will
- Knowing who the executor is, and where the will is kept

Who can help?

- Solicitor
- The Law Society or Institute, or Legal Aid
- Dementia Australia

Decisions about medical treatment

If a person with dementia loses the legal capac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someone else needs to make those decisions for them. In most States and Territories a trusted relative or friend can be appointed to make these decisions. If this has not been put in place, the law in every State and Territory allows a particular court to appoint someone to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 person with dementia.

Two types of tools are available to help plan ahead for decisions about medical treatment:

- An enduring power of attorney covering health matters. This allows the person with dementia to appoint a person to be a substitute decision-maker for medical decisions
- An advance directive. This is a written document expressing the wishes of the person with dementia about medical treatment

Different names may be used in some States and Territories, but the function of the document is much the same.

Planning ahead means:

- Ensuring the person with dementia has the opportunity to make an enduring power of attorney covering health matters or an advance directive
- Having a copy of the document, and knowing where it is kept

Who can help?

- Solicitor
- The Law Society or Institute, or Legal Aid
- The Public Advocate or Public Guardian
- Dementia Australia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In most States and Territories there is a Guardianship Board or Tribunal that can appoint a guardian or administrator for a person who is no longer able to make decisions for themselves. If there are problems dealing with the affairs of the person with dementia, or there is conflict about the person's best interests, an application for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or administrator may need to be considered.

Dementia Australia can be contacted to discuss whether an application to appoint a guardian or administrator may be needed, and how to go about it.

FURTHER INFORMATION

Dementia Australia offers support, information, education and counselling. Contact the National Dementia Helpline on **1800 100 500**, or visit our website at dementia.org.au



For language assistance phone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on **131 450**